



CKLINE

천경해운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80-1(을지로2가 보승빌딩 7층)
TEL : 02-3788-6800 FAX : 02-3788-6870
Boseung B/D 7F, 80-1, Eulji-Ro, Jung-Gu, Seoul, Korea

따뜻한 마음만 주고받는 경자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천경해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귀사의 발전과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천경해운에서는 과거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 고마운 분들께 선물을 보내 드리고, 여러 분들이 또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을 기점으로 천경해운은 회사 차원에서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한 명절문화 정착을 통한 협력 및 상생을 위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천경해운을 항상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서로의 마음만으로도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오직 고객 만족과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김 지 수